

大韓眼耳鼻咽喉皮膚科學會誌 : 第15卷 第1號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Vol. 15, No 1, August 2002.

## 蕁麻疹치료상의 經絡과 經穴운동에 대한 文獻的 考察

千承哲 · 李玆玟 · 池鮮漢\*8)

### ABSTRACT

#### A literatual study on the aproaching of the acupunctual clinic on urticaria

*Seung-chul Chun · Hyun-min Lee · Seon-young Jee*  
*Dept.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san University, Daegu, Korea*

For the purpose of treating for urticaria, they orderly use LI, B, GV in acute stage, and use the kyunghyul of Sp, CV, P, Liv, L in chronic stage.

we can presume that in the past, they must select these kyunglak and kyunghyul by the phase and the period of the urticaria. To approach to treating urticaria, it is necessary the selecting of kyunghyul by the phase and period of the urticaria.

---

8) 경산대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과교실

## I. 緒 論

蕁麻疹이란 흔히 두드러기(Urticaria)<sup>1-2)</sup>라고 하며 西醫學的으로는 흔한 알레르기 疾患으로, 전체 인구의 10-20%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쯤은 앓게되는 병으로 보고 있다<sup>2)</sup>. 蕁麻疹은 피부의 血管反應으로서 특징적인 膨疹이 나타나고 붉은 發赤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심한 瘙痒感이 나타난다. 膨疹의 形狀은 圓形, 環狀, 蛇行狀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膨疹은 頭部, 掌蹠을 포함한 全身의 피부 어디에서나 出現한다. 때로는 입술점막, 위장점막, 상기도 점막에서도 발생하며 腹痛, 嘔聲, 呼吸困難 등의 胃腸症狀이나 呼吸器 症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sup>3)</sup>.

蕁麻疹은 韓醫學적으로 癩疹에 해당하는데 高<sup>4)</sup>는 蕁麻疹이 韓醫學의 隱疹, 風疹塊, 風痧, 風搔 隱疹, 癩疹 등의 病名으로 나타나 있다고 紹介하고 있다.

癩疹은 피부에 隱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피부표면이 두드러지고 경계가 명확하며 瘙痒感이 심하거나 혹은 不仁하는 것이라 하였다<sup>5)</sup>. 이 병은 稟府不耐로 人體가 자극인자를 견디지 못하여 榮衛失和, 氣血凝滯하여 일어난다<sup>6-7)</sup>.

최근 환경오염과 주위의 刺戟因자의 급증에 의해 피부과 질환의 발생률은 점점 증가추이에 있는데 蕁麻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診斷은 쉬우나 原因 糾明이 어렵고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때문에 韓方治療가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韓藥의 사용으로 蕁麻疹의 治療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蕁麻疹의 治療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藥物療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鍼灸治療의 實例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보다 多樣한 治療방법의 접근을 통해 蕁麻疹 治療 效果의 상승을 꾀하고자 文獻들에 나와 있는 治療穴이나 治療經絡의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그 運用을 살펴보고아서 蕁麻疹의 治療에 있어서 鍼灸治療의 信賴性을 얻고, 실지 臨床에서의 다양한 응용을 기대하고자 한다.

## II. 調查資料 및 方法

### 1. 調查資料

鍼灸 專門書籍이나 皮膚科 專門書籍 26종 중 蕁麻疹, 또는 癩疹의 治療穴이 言及된 부분과, 文獻에 실려진 臨床 報告를 對象으로 調查하였다.

『東醫皮膚科學<sup>8)</sup>』, 『實用鍼灸學<sup>33)</sup>』, 『實用鍼灸學<sup>9)</sup>』, 『鍼灸臨證指南<sup>10)</sup>』

『鍼灸臨床辨證論治<sup>11)</sup>』, 『鍼灸理法一點通<sup>12)</sup>』

『中醫入門叢書<sup>13)</sup>』, 『鍼灸治療學<sup>14)</sup>』

『現代鍼灸治療圖鑑<sup>15)</sup>』, 『나가노식 新鍼灸療<sup>6)</sup>』, 『鍼灸臨床五十年<sup>17)</sup>』

『國譯鍼灸大成<sup>18)</sup>』, 『百病鍼灸推拿高效療法<sup>19)</sup>』

『鍼灸臨床經驗輯要<sup>20)</sup>』, 『鍼灸臨床妙用<sup>21)</sup>』

『實用鍼灸大全<sup>22)</sup>』, 『實用鍼灸推拿治療學<sup>23)</sup>』

『鍼灸精要<sup>24)</sup>』, 『鍼灸臨床學<sup>25)</sup>』

『鍼灸自學指南<sup>26)</sup>』, 『鍼灸醫學典論<sup>27)</sup>』, 『鍼灸に

よる難病治療の實際<sup>28)</sup>』, 『鍼灸臨證精要<sup>29)</sup>』

『皮膚病中醫診療學<sup>30)</sup>』, 『鍼灸 23,000病例驗方<sup>1)</sup>』, 『鍼灸寶鑑<sup>32)</sup>』

### 2. 調查方法

1) 經穴의 사용 頻度數는 處方 構成과는 상관없이 사용된 횟수를 중심으로 計算하였다.

2) 사용된 經絡의 頻度數도 處方 構成과는 상관없이 사용된 횟수를 중심으로 計算하였다.

3) 經穴이나 經絡의 使用頻도가 辨證이나 部位別 治療方에서 重複되는 경우 각각 한번씩 言及

된 것으로 重複 계산하였다.

4) 參考文獻중 사용되는 經絡과 經穴을 辨證이나 部位別로 治療方을 나눌 경우 그 區分 基準에 따라서 再調査 하였다.

5) 經穴과 經絡의 再分類는 參考 文獻의 分類 基準에 따라서 部位別, 使用 經絡別, 辨證別, 主·配穴別, 病變 部位別 分류를 하였다.

### III. 本 論

#### 1. 蕁麻疹 治療에 사용된 經絡의 經穴과 사용 횟수

<표1.> 使用經絡別 經穴의 使用回數와 使用比率

		經絡	經穴名	穴數	比率1	回數	比率2	
陰經	手三陰經	手太陰肺經	列缺, 太淵, 魚際, 尺澤, 中府	5	7.1	6	1.5	
		手少陰心經		0	0	0	0	
		手厥陰心包經	內關, 曲澤	2	2.9	10	2.5	
	足三陰經	足太陰脾經	三陰交, 血海, 陰陵泉	3	4.2	74	18.6	
		足少陰腎經	太谿, 築賓, 復溜, 湧泉	4	5.7	6	1.5	
		足厥陰肝經	行間, 其門, 丘墟, 太衝	4	5.7	8	2.0	
	任脈		中脘, 膻中, 中極, 氣海	4	5.7	16	4.2	
	(小計)				(22)	(31.4)	(120)	(30.2)

陽經	手三陽經	手陽明大腸經	曲池, 合谷, 肩髃, 手三里, 陽鷄, 迎香	6	8.6	94	23.6
		手太陽小腸經	肩中俞, 腕骨	2	2.9	2	0.5
		手少陽三焦經	外關, 天膠, 絲竹空, 陽池, 天井	5	7.1	10	2.5
	足三陽經	足陽明胃經	足三里, 天樞, 伏兔, 豐隆, 上巨虛, 梁門, 解谿, 大巨	6	8.6	42	10.5
		足太陽膀胱經	委中, 膈俞, 大腸俞, 腎俞, 脾俞, 風門, 肺俞, 胃俞, 天柱, 肝俞, 膀胱俞, 心俞, 束骨	14	18.6	56	14.1
		足少陽膽經	風池, 風市, 環跳, 陽陵泉, 陽輔, 懸鍾, 肩井	7	10.0	39	1.0
督脈		大椎, 百會, 風府, 身柱, 脊中, 至陽, 神道	7	10.0	35	8.8	
(小計)				(49)	(68.6)	(278)	(69.8)
計				71	100.0	398	100.0

(비율1 - 經絡別로 사용된 經穴수/총 사용經穴수)

(비율2 - 經絡別 經穴의 사용횟수/經穴의 총 사용횟수)

2. 蕁麻疹 治療에 사용된 經絡別 經穴의 사용 빈도

<표2> 經絡別 經穴의 사용빈도

	49回-40回	39回-30回	29回-20回	19回-10回	9回-5回	4回-1回	計
手太陰 肺經						列缺(2)太淵(1) 魚際(1)尺澤(1) 中府(1)	5(6)
手少陰 心經							0
手厥陰 心包經					內關(7)	曲澤(3)	2 (10)
足太陰 脾經		三陰交(39)	血海(20)	陰陵泉(15)			3 (74)
足少陰 腎經						太谿(2)築賓(2) 復溜(1)湧泉(1)	4(6)
足厥陰 肝經						行間(3)期門(3) 丘墟(1)太衝(1)	4(8)
手陽明 大腸經	曲池(49)	合谷(34)			肩髃(6)	手三里(1)陽谿(1) 迎香(2)	6(94)
手太陽 小腸經						肩中俞(1)腕骨(1)	2(2)
手少陽 三焦經					外關(5)	天膠(2)絲竹空(1) 天井(2)陽池(1)	5 (11)
足陽明 胃經			足三里(27)		天樞(8)	伏兔(2)豐隆(1) 上巨虛(1)梁門(1) 解谿(1)大巨(1)	8 (42)
足太陽 膀胱經					膈俞(8) 大腸俞(7) 腎俞(6) 脾俞(5) 風門(5)	肺俞(4)胃俞(2) 天柱(1)肝俞(1) 膀胱俞(1) 心俞(1)束骨(1)	14 (56)
足少陽 膽經			風池(20)	風市(11)		環跳(3)陽陵川(2) 陽輔(1)懸鐘(1) 肩井(1)	7 (39)
任脈				中脘(13)		臍中(2)中極(1) 氣海(1)	4 (17)
督脈			大椎(25)			百會(3)風府(2) 身柱(2)脊中(1) 至陽(1)神道(1)	6 (35)

3. 主穴과 配穴의 治療目的에 따른 經穴 사용 빈도

<표3> 主穴과 配穴로 이용된 經絡別 사용經穴

	經絡	經穴(몇수)	計		
主穴	陰經	手三陰經	尺澤(1)	1(1)	
		手少陰 心經			
		手厥陰 心包經			
		足太陰 脾經	血海(9)三陰交(8)	2(17)	
	奇三陰經	足少陰 腎經			
		足厥陰 肝經	期門(1)	1(1)	
		任脈			
	陽經	手三陽經	手陽明 大腸經	曲池(9)合谷(2)肩髃(2)	3(13)
			手太陽 小腸經		
			手少陽 三焦經	外關(1)天膠(1)	2(2)
		足三陽經	足陽明 胃經	足三里(5)	1(5)
			足太陽 膀胱經	委中(1)膈俞(1)	2(2)
			足少陽 膽經	風池(3)風市(3)陽陵泉(1)陽輔(1)	4(8)
		督脈	大椎(5)風府(1)	2(5)	
配穴		陰經	手三陰經	內關(1)	1(1)
			手少陰 心經		
			手厥陰 心包經		
	足太陰 脾經		陰陵泉(3)	1(3)	
	奇三陰經	足少陰 腎經			
		足厥陰 肝經	丘墟(1)行間(1)	2(2)	
		任脈	中脘(1)	1(1)	
	陽經	手三陽經	手陽明 大腸經	合谷(6)手三里(1)	2(7)
			手太陽 小腸經		
			手少陽 三焦經		
		足三陽經	足陽明 胃經	足三里(3)天樞(1)	2(4)
			足太陽 膀胱經	胃俞(1)膈俞(1)委中(1)	3(3)
			足少陽 膽經	風池(2)陽陵泉(2)風市(1)陽輔(1)	4(6)
		督脈	大椎(4)	1(4)	

4. 辨證, 病症部位 및 病期에 따른 經絡과 經穴의 處方分類

1) 辨證別 處方 構成經穴

<표4> 辨證에 따른 使用經穴과 經穴

辨證(언급횟수)	經絡	經穴(횟수)	使用經穴數(횟수)
風熱(5)	手陽明大腸經	曲池(4) 合谷(2)	4(8)
	手太陰肺經	魚際(1)	
	足太陰脾經	三陰交(4)	1(7)
	足少陽膽經	風池(2)	
	足太陽膀胱經	委中(1) 膕俞(1)	2(2)
	督脈	大椎(3) 百會(1)	
	任脈	中脘(1)	1(1)
	風寒(2)	手陽明大腸經	合谷(1) 曲池(1)
足陽明胃經		足三里(2)	1(2)
血燥生風(3)	手陽明大腸經	曲池(2) 合谷(1)	2(3)
	足太陰脾經	三陰交(3) 血海(3)	2(6)
	足厥陰肝經	行間(1)	
	督脈	風門(1)	1(1)
	腸胃積熱(4)	手陽明大腸經	曲池(3)
足太陰脾經		三陰交(3) 陰陵泉(2)	2(5)
足陽明胃經		天樞(3) 足三里(2)	
足太陽膀胱經		上巨虛(1)	2(6)
足太陽膀胱經		大腸俞(1)	
足少陽膽經		陽陵泉(1)	1(1)
任脈		中脘(1)	1(1)
脾虛(3)		手陽明大腸經	曲池(3)
	足太陽膀胱經	脾俞(2)	1(2)
	足陽明胃經	足三里(2)	
	足太陰脾經	陰陵泉(1)	1(1)
	氣血兩虛(3)	手陽明大腸經	合谷(3) 曲池(1)
足太陰脾經		三陰交(3)	1(3)
足少陽膽經		陽陵泉(1)	1(1)
足少陰腎經		復溜(1)	1(1)

2) 病變 部位別 處方 構成經穴

<표5> 病變 部位別로 사용된 處方的 構成 經穴과 經絡

部位選定	部位	經絡	經穴
上·下半身	上半身	手陽明大腸經	曲池(4), 合谷(1)
		手厥陰三焦經	內關(1)
		足太陰脾經	血海(1)
	下半身	足少陽膽經	風池(2)
		足太陰脾經	血海(2), 三陰交(1)
		足陽明胃經	足三里(3)
區間別	頭面部	足太陽膀胱經	委中(1)
		手厥陰心包經	內關(1)
		手陽明大腸經	迎香(1)
		手少陽三焦經	絲竹空(1)
	上肢部	足少陽膽經	風池(5)
		手陽明大腸經	合谷(2)
	下肢部	手少陽三焦經	外關(1)
		足太陰脾經	三陰交(3), 血海(3)
		足陽明胃經	足三里(3), 伏兔(1)
		足太陽膀胱經	委中(1)
	胸部	足少陽膽經	風市(4)
		手太陽小腸經	肩中俞(1)
		任脈	膻中(1)
	腹部	督脈	大椎(1)
		足厥陰肝經	章門(1), 天樞(1)
腰背部	任脈	中脘(1)	
	足太陽膀胱經	腎俞(2), 肺俞(1), 委中(1)	
全身	督脈	風門(1)	
	手陽明大腸經	合谷(1), 曲池(1)	
	足陽明胃經	足三里(1)	
	足太陰脾經	三陰交(1)	
	足少陽膽經	風池(1), 風市(1)	

3) 病期에 따른 處方

<표6> 病期에 따라 사용된 處方的 經穴과 經絡

經絡

	經穴	經絡
急性	大椎, 曲池, 合谷, 大腸俞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督脈
慢性	大椎, 曲池, 合谷, 大腸俞, 三陰交, 足三里, 委中, 解谿, 中脘, 梁門, 脾俞, 天膠, 心俞, 內關, 環跳, 膕俞, 肝俞	手陽明大腸經, 手少陽三焦經, 手厥陰心包經, 足太陰脾經, 足陽明胃經, 足太陽膀胱經, 督脈, 任脈

5. 多利用 經穴과 經絡의 主治·效能

1) 10回 이상 言及된 經穴의 主治·效能

<표7> 10回 이상 사용된 經穴의 언급된 횟수, 所屬

經穴	回數	所屬 經絡	主治 <sup>37)</sup>	效能 <sup>36-37)</sup>
曲池	49	手陽明 大腸經	上肢關節痛, 痲痺, 偏麻痺, 高血壓, 高熱, 麻疹, 貧血, 알레르기疾患, 甲狀腺腫大, 皮膚病	祛風解表 清熱利濕 調和營血
三陰交	39	足太陰 脾經	泌尿器·生殖器疾患, 腹脹, 腹痛, 泄瀉, 神經衰弱, 神經性皮膚炎, 濕疹, 蕁麻疹	健脾化濕 疏肝益腎
合谷	34	手陽明 大腸經	感冒, 五官科疾患, 顔面神經麻痺, 偏麻痺, 神經衰弱, 各種 疼痛	疏風 解表 鎮痛 通絡
足三里	27	足陽明 胃經	潰瘍性疾患, 急性脾臟炎, 消化器系患, 偏麻痺, 쇼크, 虛弱體質, 貧血, 高血壓, 알레르기성疾患, 黃疸, 癲癇, 哮喘, 泌尿·生殖器疾患, 神經衰弱	利脾胃 調氣血 補虛弱
大椎	25	督脈	發熱, 中暑, 癱瘓, 咳嗽, 精神分裂症, 癲癇, 氣管支炎, 哮喘, 肺結核, 肺氣腫, 肝炎, 血液疾患, 濕疹, 癩瘡, 肩背痛	解表通陽 清腦寧神
血海	20	足太陰 脾經	月經不調, 機能性子宮出血, 蕁麻疹, 皮膚瘙癢症, 神經皮膚炎, 貧血	和營 清熱
風池	20	足少陽 膽經	感冒, 頭暈, 頭痛, 項強痛, 眼疾患, 鼻炎, 耳鳴, 耳聾, 高血壓, 癲癇, 偏麻痺, 腦疾患	消風解熱 聰耳明目
陰陵泉	15	足太陰 脾經	腹脹, 腹水, 尿低流, 尿失禁, 尿路感染症, 月經不順, 流精, 腰腿痛	化濕滯 利下焦
委中	14	足太陽 膀胱經	中暑, 急·慢性腸炎, 腰背痛, 坐骨神經痛, 膝關節炎, 下肢癱瘓, 腓腹筋痙攣	泄暑熱 利腰膝
中脘	13	任脈	胃炎, 胃潰瘍, 胃下垂, 急性慢性胃炎, 急性腸狹窄, 腸閉塞, 胃痛, 嘔吐, 腹脹, 泄瀉, 便秘, 消化不良, 高血壓, 神經衰弱, 精神病	調胃 利氣 化濕 降逆
風市	11	足少陽 膽經	下肢癱瘓, 腰腿疼, 外側大腿皮神經炎	通經活絡 疎風邪 清濕熱 強健腰腿 止癢止痛

2) 10回 이상 사용된 經絡의 流走·主治

<표8> 10回 이상 사용된 經絡의 使用穴의, 言及回數, 使用比率과 그 流走, 主治

(비율 - 사용經絡에 속한 經穴數: 該當經絡에 쓰인 經穴의 언급횟수)

經絡	使用 穴數	使用穴 言及回數	比率	流走 <sup>36)</sup>	主治 <sup>37)</sup>
手陽明 大腸經	8	96	1:12	起於大指次指之端.>合谷兩骨之間>臂上廉,外廉上. 臑外前廉>肩>推骨之會>頸>脇口>人中>俠鼻孔	腹部疾患의 疾病 神經精神疾患 眼目口齒鼻咽喉疾患 大腸經經過部位病症
足太陰 脾經	3	74	1:24.67	大趾內側之端>核前白肉際>踝前>踝上>膝內側>膝內廉>腹>橫骨兩腋胸>腋下>連腋之下	消化器系病症 泌尿生殖器病症 脾經經過部位病症
足太陽 膀胱經	13	56	1:4.31	起於目內眥>額>頂>項>肩膊中, 支別>膊>夾脊>髀樞>夾脊低腰中, 支別>臀>合關中>腓內>外踝後脛骨>小趾之端	泌尿生殖器疾患 神經精神疾患 呼吸循環消化系病症 熱性病 膀胱經經過部位病症
足陽明 胃經	6	42	1:7	起於鼻交頰中>鼻交>環唇>大迎 支別>頰車>耳前>至額前 支別>人迎>缺盆>乳 >扶膺腹>氣街>脾關 >膝中>迎高廉>中趾外廉	消化器系疾患 神經精神疾患 呼吸循環系疾患 咽喉頭面口齒鼻胃經經過部位病症
足少陽 膽經	7	39	1:5.57	起於銳骨>頭角>耳前>環頰>肩>缺盆>腋胸>腋中>膝外廉>步骨前>絕骨端>外踝前>足跗上>小刺趾刺次端	胸膈肝膽之病 熱性病神經系統病症 側頭部眼耳鼻喉病症 膽經經過部位病症
督脈	7	35	1:5	起於下極之臑 >脊>風府>前額>鼻柱>銀交	神經系呼吸系消化系 泌尿生殖器運動系 熱性病 督脈經過部位病症
任脈	4	16	1:4	起於中極之下 >毛際>關元>喉嚨>承漿>面入>目	神經系消化系呼吸系 泌尿生殖器病症 寒性病 任脈經過部位病症
手厥陰 心包經	2	10	1:5	起於胸中>脇>腋>下臂內>肘>腕>掌中>環中指出其端	胸心等循環系病症 神經精神疾病 心包經經過部位疾病

III. 總括 및 考察

癩疹은 西醫學적으로는 蕁麻疹으로 흔히 두드러

기라<sup>1)</sup> 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로 인한 피부 질환이다<sup>35)</sup>. 두드러기는 그 發生機轉과 原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 機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면역학적 機轉으로 IgE 매개성 두드러기, 고체 매개성 두드러기를 포함하며 비 면역학적 機轉으로는 항원이 직접 비만세포의 탈 과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原因은 外因으로 모기, 이, 벼룩 등에 물린 경우, 독충이나 특유식물과의 접촉, 약물, 한랭의 자극, 특정음식(계, 조개, 계란, 고등어, 딸기, 새우)등이 있고 알레르기 체질, 胃腸障礙, 肝疾患, 慢性腎炎, 神經症 등이 由因이 된다<sup>1)</sup>.

蕁麻疹의 치료에 있어서 西醫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 회피요법과 특이적 감각작용법을 사용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증요법으로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항알레르기제, 심신의학적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慢性蕁麻疹의 경우는 실지 임상에서 70%이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데 H1 및 H2 항히스타민제와 몇몇 치료에 저항하는 환자에서 사용되는 혈장 교환법, 면역 글로불린 정맥주사 및 저용량의 Cyclosporine이 慢性 特發性 두드러기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일부분은 고친화성 IgE 수용체의  $\alpha$ -Subunit에 대한 자가항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 학설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sup>38)</sup>.

癩疹은 『素問·四時刺逆從論<sup>34)</sup>』에서 “少陰有餘 病皮痺癩疹”이라고 처음 記載되어 있다. 『東醫寶鑑<sup>37)</sup>』에서는 “癩疹 多居脾 隱隱然在皮膚之間故言癩疹也”라 하여 五臟중에 脾에 歸納시키고 있는데 肺나 肝에 歸屬시키지 않고 脾에 歸屬시키는 것은 臨床的으로 脾가 水穀의 精微와 水濕을 運化하는 기능을 가지며 脾가 肌肉을 주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sup>5)</sup>.

蕁麻疹, 즉 癩疹의 치료는 韓醫學적으로는 주로

風熱症, 風寒症, 氣血兩虛증을 중심으로 內治法과 外治法, 鍼灸療法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癩疹의 鍼灸治療 療法은 疏風活血和營, 清熱和營, 祛風止痒, 疏風利濕, 清熱涼血, 調和營衛, 營衛止痒 등의 治法을 사용하고 있다. 서의학적으로는 原因을 아는 경우 회피요법을 쓰며,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비만세포 억제제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sup>.

癩疹의 鍼灸治療에 있어서 鍼灸專門書籍 또는 外科 專門 文獻 26종에 나와 있는 蕁麻疹이나 癩疹의 治療에 대한 治法이나 실제 治療보고를 분석한 결과 經穴學에서 언급되는 正經의 穴數 361개 중 총 71개(19.7%)의 經穴들이 사용되었고, 經絡의 사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陰經의 22개 經穴(31.4%)이 120회(30.2%)의 빈도수로 사용되었고 陽經에서는 49개 經穴(68.6%)이 278회(69.8%)의 빈도수로 사용되었다.

經絡들 각각의 사용빈도는 手陽明大腸經이 8개의 經穴(11.6%)들로 96회(24.0%)의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나타내었고 足太陰脾經이 3개 經穴(4.3%)로 74회의 빈도수(18.5%)를 나타내었고 足太陽膀胱經(14.0%), 足陽明胃經(10.5%), 足少陽膽經(9.7%), 督脈(8.8%), 任脈(4.0%), 手厥陰心包經(2.5%), 足厥陰肝經(2.3%), 手少陽三焦經(2.0%), 手太陰肺經(1.5%), 手太陽小腸經(2.0%)의 순으로 나타났고 手少陰心經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手陽明大腸經의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足太陰脾經의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癩疹이 흔히 急性 病症으로 인식하여 陽經의 治療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健脾化濕 疏肝益腎하는 脾經의 사용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癩疹治療에 사용된 經穴의 빈도수를 보면 曲池가 49회로 가장 多用된 經穴이고 三陰交가 39회, 合谷이 34회, 足三里가 27회, 大椎가 25회, 血海가 20회, 風池가 20회, 陰陵泉이 15회, 委中이 14회,

中脘이 13회, 風市가 11회 등의 사용횟수로 多用되었다. 이 중 曲池는 祛風解表하는 手陽明大腸經의 經혈로서 祛風解表, 調和營血하는 穴性으로 肌膚之間의 氣血凝滯를 解消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가장 多用되는 經혈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分포부위가 넓고 外邪에 대해 表部로 작용하는 足太陽膀胱經의 經穴들의 사용이 12개 經穴이 42회로 사용 經혈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背臑穴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分포 부위가 다양하고 증상의 발현이 개인마다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인 癩疹에 있어서 그 治療상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文獻에서 15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主穴로 쓰인 經穴과 經絡은 足太陰脾經이 17회, 手陽明大腸經이 13회 사용되었다. 이를 사용 經혈별로 보면 血海가 9회, 曲池가 9회, 三陰交가 8회, 大椎가 5회, 足三里가 5회로 사용되었고 肺經의 尺澤, 肝經의 期門, 三焦經의 外關, 天膠, 膀胱經의 危重, 膈臑, 膽經의 陽陵泉, 良輔, 督脈의 風府가 각각 한번씩 사용되었다. 이는 癩疹의 치료에 사용된 鍼灸處方에 있어서 經穴들의 運用이 清熱解表와 調氣血의 목적임을 보여준다. 配穴의 경우는 合谷이 6회, 陰陵泉이 3회, 足三里가 3회, 大椎가 4회 등의 사용을 보였고, 心包經의 內關, 胃經의 天樞, 肝經의 丘墟 行間, 大腸經의 手三里, 膀胱經의 胃臑, 膈臑, 委中, 膽經의 風市 陽輔 등이 각각 한번씩 사용되었다.

足三陽經의 경우 사용경혈이 거의 비슷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手陽明大腸經의 경우는 主穴이 曲池, 合谷, 肩髃이고, 配穴이 合谷, 手三里로 合谷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經혈이 사용되었고 足太陰脾經의 경우는 主穴로 血海, 三陰交가 사용되었고 配穴로는 陰陵泉이 서로 구분되어 사용됨을 보였다.

7개의 文獻에서는 변증에 따른 침구 처방이 언

급되었는데. 처방의 構成經穴은 風熱의 辨證처방이 5회로 가장 많이 나왔고 血燥生風, 腸胃積熱, 脾虛, 氣血兩虛 등의 辨證을 기초로 經穴들이 運用되었다. 이도 역시 足太陰脾經, 手陽明大腸經을 중심으로 曲池, 足三里, 血海, 三陰交 등의 經穴을 爲主로 사용되었다.

病變部位別 처방의 구성 經穴은 9개의 文獻에서 24개의 經穴들이 언급되었는데 本論에서 언급된 經穴들에 포함되고 그 외에 쓰인 經穴들은 絲竹空, 內關, 迎香, 外關, 伏兔, 委中, 臑中, 肩中俞, 天樞, 章門, 腎俞, 肺臑, 風門 등으로 모두 1회 이하 언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서 26종의 鍼灸 專門書籍이나 外科 專門書籍에 나타난 癩疹이나 蕁麻疹의 治療에 사용된 經穴의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10회 이상의 사용빈도를 나타낸 經穴들의 主治와 效能을 살펴 보면 대부분 현대 癩疹의 한방적 치법에 부합하여 祛風, 清熱, 健脾, 化濕, 調和營血의 목적으로 曲池, 三陰交, 合谷, 足三里, 大椎, 血海, 風池, 陰陵泉, 委中, 中脘, 風市의 순으로 多用되었고, 사용혈의 언급 횟수가 10회 이상인 經絡의 流走와 主治를 정리해 보면 각 經絡의 流走 부위의 病변을 主治하고, 주로 風熱, 風寒, 血燥, 腸熱, 脾虛, 氣血虛 등으로 변증되는 蕁麻疹의 治療에 가장 多用된 手陽明大腸經, 足太陰脾經, 足太陽膀胱經, 足陽明胃經의 主治에 腹部疾患 또는 소화기계의 病변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病변의 分포에 따라 각 經絡의 走行部位를 참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足太陰脾經의 경우 사용된 經혈이 三陰交, 血海, 陰陵泉의 세 혈로만 나타나서 하나의 經혈에 대한 그 經혈의 평균 언급횟수를 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 24.67로 가장 높아서 三陰交, 血海, 陰陵泉이 세 혈의 사용이 脾經의 사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足太陽膀胱經, 任脈, 督脈, 手厥陰心包經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1: 4.31, 1: 4, 1: 5, 1: 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서 隨症配穴의 의의가 더 높은 것으로 사려된다.

한방적으로 蕁麻疹의 治療는 대개 急性과 慢性의 기준이 그 변증과 治療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sup>7)</sup>은 急性에는 風熱束表, 陽明熱盛, 風邪束表, 風寒客於肌表가 속하고 慢性에는 陰血不足, 風邪束表가 속한다고 하여 急性에서는 六淫에 의한 일시적인 병변으로 여겨지며, 慢性에서는 氣虛, 血虛에 의한 虛症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병기에 따른 鍼灸처방의 구성經穴을 보면 5개의 文獻에서 언급되었는데 急性기에는 상기에서 인용된 經絡과 經穴들을 중심으로 手陽明大腸經과, 足太陽膀胱經, 督脈이 쓰여 오로지 陽經의 運用을 볼 수 있고 그 구성 經穴도 大椎, 曲池, 合谷, 大腸俞의 네 개혈의 사용을 볼 수 있다.

반면에 慢性의 경우는 急性에 쓰인 세 經絡의 經穴들을 포함하여 그 밖에 足太陰脾經, 手厥陰三焦經, 足陽明胃經, 手少陽三焦經, 任脈의 추가 經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구성 經穴들을 살펴보면 本論에서 언급되었던 蕁麻疹 치료에 사용된 經穴들 중에서 비교적 언급된 수가 적었던 經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慢性 蕁麻疹 치료에 있어서는 침구치료의 입장에서 시술자의 관점에 따라 치료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치료의 원칙이 아직은 완전히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慢性 蕁麻疹의 경우 서의 학적으로도 아직 그 기전의 연구가 완성되지 않아서 대증요법 위주의 治療에 그치고 있는데, 조사 자료에 나타난 針灸治療에서는 急性 治療에 쓰인 經穴들 외에 健脾化濕하는 脾經과 陰脈之海인 任脈, 神經性 疾病이 主治인 心包經의 經穴들이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慢性 蕁麻疹의 鍼灸治療에 있어서 足太陰脾經, 手厥陰心包經, 任脈 등의 陰經의 사용이 본 질환

의 治療에 있어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蕁麻疹 治療에 사용된 經穴을 鍼灸處方을 중심으로 보면 該當經絡의 主治와 그 經穴의 穴性에 근거하여 상용되는 經穴들을 중심으로 시술되었고 또한 症狀의 部位나 發顯 樣相에 따라서 隨症配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結 論

蕁麻疹의 鍼灸治療에 있어 經絡과 經穴의 運用을 鍼灸 관련 전문서적과 外科 관련 전문 서적 26종에서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1. 각 經絡의 사용은 手陽明大腸經이 8개의 經穴(11.6%)들로 96회(24.0%)의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나타내었고 足太陰脾經이 3개 經穴(4.3%)로 74회의 빈도수(18.5%)를 나타내었고 사용 빈도수를 중심으로 보면 足太陽膀胱經(14.0%), 足陽明胃經(10.5%), 足少陽膽經(9.7%), 督脈(8.8%), 任脈(4.0%), 手厥陰心包經(2.5%), 足厥陰肝經(2.3%), 手少陽三焦經(2.0%), 手太陰肺經(1.5%), 手太陽小腸經(2.0%)의 순으로 나타났고 手少陰心經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2. 蕁麻疹의 治療에 사용된 經穴은 曲池가 49회로 가장 多用되었고, 三陰交 39회, 合谷 34회, 足三里 27회, 大椎 25회, 血海 20회, 風池 20회, 陰陵泉 15회, 委中 14회, 中脘 13회, 風市 11회 등의 순으로 多用되었다.

3. 急性期에는 手陽明大腸經과 足太陽膀胱經, 督脈이 쓰여 오로지 陽經의 運用을 볼 수 있고 그

구성 經穴도 大椎, 曲池, 合谷, 大腸俞의 4개 穴의 사용을 볼 수 있고, 慢性 蕁麻疹의 治療에 있어서는 急性 治療에 쓰인 經穴들 외에 健脾化濕하는 脾經과 陰脈之海인 任脈, 神經性 疾病이 主治인 心包經의 經穴들이 쓰였다.

蕁麻疹 治療에 사용된 經穴을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그 運用을 살펴본 결과, 급성기에는 祛風解表하는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督脈 등의 陽經을 위주로 經絡 및 經穴을 選用하였으며 만성기에는 健脾化濕하는 足太陰脾經과 任脈, 手厥陰心包經, 足厥陰肝經, 手太陰肺經의 經穴을 配伍하여 病期와 症狀에 의한 辨證에 따라 隨證配伍함을 알 수 있다. 蕁麻疹 治療의 鍼灸學的 접근에 있어서 피부의 증상에 따른 陽經위주의 取穴에 病期와 다른 전신증상을 고려한 辨證에 따라 陰經의 經穴을 配伍한다면 보다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吳方濟 選編. 最新 針灸 藥物 綜合治療學. 4. 서울:聖家針灸研究社. 1975:95-102.
2. 大韓皮膚科學회. 教科書編纂委員會. 皮膚科學. 1. 서울:麗文閣. 1994 :502-508.
3. 안성구, 이승헌. 핵심피부과학. 1. 서울:고려의학.1999:79-82.
4. 정혜운, 지선영. 蕁麻疹에 대한 양한방적 고찰. 동서의학. 1997;22(1):68-82.
4. 고우신. 隱疹의 辨證에 따른 治法과 治方의 文獻의 考察. 大韓外關科學會誌. 1995; 8(1):75-98.
5. 전백수. 臨床各科疾病療法. 1. 上海:中外出版社. 1976:398-402.
6. 김중호, 채병윤. 癩疹(隱疹)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大韓韓醫學會誌. 1986;7(2):45-56.
7. 이정숙, 노석선, 김한성. 癩疹(蕁麻疹)에 대한 문헌적 고찰. 大韓韓醫學會誌. 1993;14(1): 31-44.
8. 池鮮漢. 東醫皮膚科學. 1. 大丘:一中社. 1996:222.
9. 天津中醫學院第一附屬醫院鍼灸科. 實用針灸學. 1. 天津:天津科學出版社. 1985:327.
10. 胡照明. 針灸臨證指南. 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570-9.
11. 李世珍, 李傳岐, 李宛亮. 鍼灸臨牀辨證論治. 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678-90.
12. 王宏才, 陳正道, 王晉平, 趙曉東. 針灸理法一點通. 1. 甘肅城. 甘肅民族出版社. 1993:282.
13. 楊醫並. 中醫入門叢書. 2.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176-7.
14. 林鍾國. 針灸治療學. 2. 서울:集文堂. 1983:902.
15. 倉島宗二. 現代鍼灸治療圖鑑. 1. 서울:癸丑文化社. 1984:101.
16. 長野 潔. 나가노식 新鍼灸療. 1. 서울:大成醫學社. 1999:342.
17. 賀琦. 針灸臨牀五十年. 1. 山東:山東高等教育出版社. 1993:231.
18. 楊繼洲. 國譯針灸大成. 1. 서울: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469.
19. 楊光. 百病針灸推拿高效療法. 1.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2:415-7.
20. 焦國瑞. 針灸臨牀經驗輯要. 1.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342-5.
21. 鄭其偉. 錢淳宜. 針灸臨牀妙用. 1.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611-5.
22. 劉漢銀. 實用針灸大全. 1. 北京:北京出版社. 1988:443-5.

23. 夏治平. 實用針灸推拿治療學. 1.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729-30.
24. 李芳遠. 鍼灸精要. 1. 서울:東國大學校 漢醫科大學 原典研究. 1997:379-80.
25. 孫申田, 高維濱. 針灸臨床學. 1.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6:162-4.
26. 甘承銓. 針灸自學指南. 1. 合肥: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2:265-6.
27. 金泰英. 鍼灸醫學典論. 1. 서울:國際東洋醫學會. 1979:649.
28. 張登部. 鍼灸による難病治療の實際. 1. 東京:綠書房 1997:208-10, 397-400.
29. 閻潤茗. 針灸臨證精要. 1. 北京:人民軍醫出版社. 1995:189.
30. 徐宜厚. 王保方, 張賽英. 皮膚病中醫診療學. 1.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7:346-51.
31. 古錦芬. 針灸 23,000病例驗方. 1. 北京:震旦圖書公司出版. 1977:117-8.
32. 大田文誌. 鍼灸寶鑑. 1. 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702-5.
33. 呂長松. 實用鍼灸學. 1. 北京:駝鈴出版社. 1975:690-1.
34. 왕기. 皇帝內徑素問金石. 1. 서울:성보사. 1983:212.
35. 성영기. 現代鍼灸學. 1. 서울:행림출판. 1987:675-6.
36. 崔容泰 外26名. 鍼灸學. 2. 서울:집문당. 1991:71-743.
37. 金賢濟, 崔容泰, 林種國, 李潤活. 最新鍼灸學. 7. 서울:성보사. 1995:161-291.